

소식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

인천소식

김 주 회
인천일보 기자

에다의 '인터랙티브 아트'

실험성 강한 대안미술을 추구하는 '스페이스 빔'이 이번에는 '인터랙티브 아트'라는 독특한 분야의 작품을 선보여 관심을 끌었다.

지난 3월 5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열린 <백순걸 생존 프로젝트, 백 많은 길 따라잡기>는 인터랙티브 아트 전문그룹 에다의 작품으로 관객의 참여를 통해 작품이 성립되는 독특한 미디어 아트 작품이다.

청년실업 시대를 혹독하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 젊은이를 상징하는 이바타 '백순걸'의 치열한 생존경쟁이 펼쳐지는 미디어 세상은 바로 관객이 주인공이다. 관객은 자신을 전원으로 움직이는 미디어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백순걸의 현재와 미래를 결정하는 모티프가 된다.

백순걸은 관객이 자전거에 올라타 페달을 돌리는 순간부터 치열한 생존경쟁의 경주에 나선다. 관객의 열정적인 응원과 환호, 아우성으로 백순걸의 운명은 달라진다.

작품은 관객이 참여하면 시작되고, 참여가 없으면 전원이 나가버리는 단순한 게임으로 남겨진다.

에다의 작품은 늘 재미와 유희성을 강조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이 같은 요소를 한층 강조했다. 이는 청년실업과 편법, 그로 인한 상실감 등을 게임이라는 형태를 통해 관객이 즐겁게 몰입하는 가운데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다.

인천예총 새 지회장 선출

한국무용협회 인천시지회장에 박혜경(40)씨가 선출되는 등 인천예총 산하 예술협회

지회장들이 새로운 얼굴로 교체됐다.

인천무용협회는 5일 정기총회를 열고 박혜경 씨를 9대 지회장에 선출했다. 임기는 4년이다.

박 회장은 서울예전 무용과를 나와 인천현대무용단에서 활동했다. 인천전문대 강사를 지냈고 발레하우스를 운영해 왔다. 현재 KAD(Korea Action Dance Company) 무용단 대표를 맡고 있다. 2003년 울산에서 열린 전국무용제에서 은상을 수상했다.

인천문인협회 인천지회장도 같은날 정기총회를 열고 36대 지회장에 김윤식(59) 시인을 뽑았다.

김 회장은 인천 출생으로 제물포고, 연대 국문과를 나왔고 1983년 월간 『현대문학』을 통해 등단했다. 시집으로는 「사랑한다는 것은」「고래를 기다리며」「북어·2」 등이 있으며 <간추린 인천사> <인천은 불타고 있는가> <월미도 이야기> 등에도 참여했다.

지난 1월 21일에는 인천사진작가협회가 김봉섭(60·신학건축사사무소 대표) 씨를 신임 지회장에 선출했다. 인천연극협회도 지난 2월 5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권용성(48·예술무대 대표) 씨를 뽑았다.

인천 지역 예술단체의 대표들이 대거 바뀜에 따라 인천예총에 변화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조현동의 <새봄, 꽃의 향기>전

현대적 조형성과 전통적 표현기법을 통해 자연의 순환이야기를 채색화로 담아낸 한국화가 조현동의 개인전 <새봄, 꽃의 향기>가 인천 신세계갤러리에서 지난 3월 21일까지 열렸다.

분채와 수묵 그리고 석채를 사용하는 전통적

인 채색화의 재료와 표현기법을 바탕으로 현대적 색채 개념과 조형성을 추구해 온 작가가 선보이는 이번 전시에서는 노란색과 보라색, 초록색과 갈색의 파격적인 보색의 대비가 돋보였다.

이와 함께 명·암, 천·지, 어패류와 꽃 등 상반된 제재와 소재를 한 공간에 대비시킴으로써 시각적 자극을 유발시킨 표현방식이 눈길을 끌었다.

작가의 파격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개의 화면을 이어 붙이는 방법으로 표현한 면의 분할과 여백의 공간을 통해 정적인 분위기를 대비시켜 '자연과 순환'이라는 생명의 신비로움을 드러낸다. 현재 대불대학교 겸임교수를 맡고 있는 조현동은 국내·외에서 15차례의 개인전을 열었으며, 이번 전시회에서는 새 봄을 맞아 봄의 향기 그윽한 생명의 태동을 느낄 수 있는 작품들을 선보였다.

인천지역사랑티켓 주관처로

인천문화재단 선정

(재)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최원식)이 2005년도 인천 지역사랑티켓 사업 주관처로 사단법인 한국예술경영협회(대표이사·오영일)를 선정했다.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4일까지 주관처를 공모했고, 그 결과 미추홀아트센터, 인천연극협회, 한국예술경영협회 등 3개 단체가 응모했다.

재단은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사랑티켓 및 주관처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와 홍보 및 관객개발의 전문성, 공정성 확보 등을 고려, 주관처로 한국예술경영협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관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공정성 시비 논란을 막기 위해 운영 시스템 방안에 대

한 충실도를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올 사랑티켓기금은 국고 1억3천500만 원과 시비 4천500만 원을 포함, 총 1억8천만 원이며, 이는 지난해의 2배다.

한편 지역사랑티켓은 지역 공연예술 분야의 관객개발지원사업으로, 지난해까지 인천시 문화예술사업으로 실시해오다 올해 인천문화재단으로 이관됐다.

경기소식

류주선
경인일보 기자

안산시 5월 국제거리극 축제

세계의 광대들이 5월 안산에 모인다. 안산 문화예술의전당(관장·이두철)은 프랑스 광대 크리스찬 타게, 브라질 광대 브루노, 2인 극단 뤼베에 등 해외 7개국 12개팀과 국내팀이 참여하는 국제거리극축제(가칭)를 5월 20~22일 개최한다.

거리극은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거리 등 야외에서 소규모로 서커스와 마임, 저글링, 퍼포먼스, 퍼레이드 등 다양한 공연을 펼치는 연극 장르. 과천한마당축제,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등 국내 몇몇 축제에서 선보인 적은 있으나 거리극만을 테마로 한 본격 거리극축제는 안산에당이 최초다. 첫 행사가 될 이번축제에는 미국, 영국, 이탈리아, 일본 등 해외 7개국 12개팀의 참여가 확정돼 있고, 국내 참가팀은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주최축은 전야제가 열릴 5월 20일에는 '불후의 광대' 찰리 채플린을 기념하기 위해 <모던 타임스> <시티 라이트> 등 채플린이 주연한 무성영화를 야외에서 상영하고 음악을 안산 A&B오케스트라와 안산시립합창단이 협연하는 생음악으로 영화의 새로운 맛을 재발견한다는 계획이다.

과천 인근 4개 지역 현대미술 작가전

과천, 안양, 의왕, 군포 등 4개 인접지역 현대미술 젊은 작가들로 구성된 '우리동네 현대미술 작가협의회'는 과천 제비울미술관과 공동으로 올해 두 번째로 <우리동네 현대미술 작가전>을 3월 17일부터 31일까지 제비울미술관에서 열었다.

지역문화의 활발한 교류와 발전을 꾀하자는

의미로 마련한 이 전시회에는 4개 지역 작가 40여 명과 특별히 초청된 수원, 안산 8명의 작가들이 평면·입체·설치 등 11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과천 지역에서는 최정현 추인엽 황승우 등 13명, 의왕에서는 임근우 정하운 이애리 등 9명, 안양 강영희 금영보 조은희 등 15명, 군포 강숙 전창봉 서봉원 한혜진 등 6명이 참여했다. 수원에서는 김수철 안재홍 안택근 이윤엽 이인경이, 안산 지역에서는 김민우 김이구 정수미 등이 초대됐다. 미술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색 이벤트로 미술품 경매도 진행됐다.

경기 지역 28개 미술관, 박물관 연합전

경기도 내 박물관과 미술관 모임인 (사)경기 박물관협의회(상임대표·김이환 이영미술관장)가 지난해 창립 이후 첫 공식 행사로 이 단체에 소속된 28곳의 소장품을 한자리에서 공개한 연합전시회 <미술관 옆 박물관>을 마련했다. 『2005 경기방문의 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가 담긴 연합전시회는 3월 3일부터 4월 10일까지 용인 경기도 박물관(관장·이종선)에서 진행되고 있다.

'전통문화와 현대미술과의 절묘한 조화'라는 부제 속에 열린 전시회에는 그야말로 다종다양한 전시작 200여 점이 나와 눈길을 모았다. 현대미술 작품은 국립현대미술관, 이영미술관, 한국미술관, 영은미술관, 모란미술관, 마가미술관 등 7개 미술관에서 김종태, 박수근, 권진규, 오세창, 김은호, 박래현, 박생광, 이우환, 박서보, 전혁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작가들의 대표작들을 출품했다. 또 해당도자 미술관, 조선관요박물관, 김포다도박물관에선 도자기를, 안성맞춤박물관에선 유기를, 등잔박물관에선 고려시대 청동등경을 내놓았다. 이 밖에도 목아불교박물관, 등지만화박물관, 토지박물관, 충현박물관, 태평양박물관, 덕포진교육박물관, 신세계한국상업사 박물관, 성호기념관, 영집공시박물관, 기독교역사박물관 등에서 다채로운 소장품을 공개했다.

경기문화재단 문예진흥기금 469건 지원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송태호)은 '2005

년도 문화예술진흥지원금' 지원대상 469건을 선정, 지난 2월 28일 발표했다. 올해 공모사업은 10개 영역에서 총 1천490건이 접수돼 경쟁률 3.2대1을 기록했으며 1건당 평균 지원액은 468만 원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접수 건수는 240여 건, 지원금액은 약 120만 원이 높아진 것이다. 올해 지원금 규모는 총 22억 원이다.

기존 장르별 지원에서 목표별 지원으로 방식을 바꾼 이번 공모사업의 특징은 전문가 영역에선 '선택과 집중'을 통해 평균 지원액을 670여만 원으로 높이고, 아마추어 영역은 종전대로 '소액다건'을 건지해 평균 300만 원 수준의 지원금을 배분해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또 1단계 2지원 불가원칙을 폐지, 지역정체성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무예 24기보존회' 등 19개 단체가 분야가 다른 2개 영역에서 지원받았다.

충청소식

이현숙
충청투데이기자

한·유럽 도자특별 초대전

한국과 유럽에서 전통 창작가마로 도자기를 굽는 작가들의 작품이 청주에서 전시됐다. 3월 11일부터 4월 17일까지 한국공예관에서 열리는 <한·유럽도자특별초대전>으로 한국과 유럽지역 도예작품을 한자리에서 비교 감상할 수 있는 기획전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번 전시에는 프랑스, 독일, 폴란드, 노르웨이 등 유럽 4개국의 도예가 4명을 비롯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양승호, 이인진, 박순관, 정동훈, 이태호, 김순희, 신승복 등 7명의 중견 도예가들이 참여했다.

이번 특별초대전에 참여하고 있는 작가들은 대부분 자연친화형 작품을 소재로 활동하고 있는 중견작가들로 출품작들은 21세기 화두인 생태주의를 도자기에 접목시킨 기법의 작품을 내놓았다.

충북민예총 음악위원회, 마당의 소리 공연

충북민예총 음악위원회가 주최하는 <마당의 소리> 공연이 3월 19일 오후 7시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렸다.

이번 공연은 마당극과 무대극의 주제를 음악

로 작곡되어진 창작음악을 선보이는 자리였다. 총북민예총의 연회패인 예술공장 두레, 풍물굿과 씨알누리, 놀이마당 울림, 극단 새벽과 함께 음악작업을 해온 김강곤 씨가 이들의 음악을 한데 엮어 작곡발표를 가졌다. 연주곡목은 1인곡 염쟁이 유씨의 주제곡으로 주목을 받았던 <염쟁이 유씨>, 마당극 <집>의 주제곡으로 상량식에서 부르는 소리를 신민으로 구성한 <얼떨리 상사디야>가 눈길을 끌었다. 이외에도 <고구려> <고드미 마을에서> <바리공주> <택견> 등 10여 곡이 연주됐다. 출연은 박노상(대곡), 이창영(소금), 이현아(피리), 김혜명(해금), 조유임(거문고), 라장흠·장호정(사물), 택견은 홍사성, 무용은 남인숙 등이 맡았다.

중창단 노을 창단 공연

지난 1980년대 총북지역에서 활동했던 통기타 라이브 가수들이 중창단 '노을'을 창단하고 공연을 가졌다. 중창단 노을은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걸쳐 지역 대학가에서 통기타 문화를 선도했던 1세대 라이브 가수들이 주축을 이뤄 결성한 음악 모임이다. 회원은 남창기 씨(웨미리 이벤트 대표)를 단장으로 총북대 재학생 시절 중창단 멤버로 활동했던 라이브 가수 김범규, 이재훈, 권희주 씨 등 4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40대와 50대 세대들로 한때의 활동을 뒤로 했던 열정을 되살리고자 뒤늦게 중년이 되어 음악 그룹에 뜻을 모았다. 한동안 개인사업과 직장인으로 일상을 살아온 지 20여 년 만에 세상 밖으로 나와 첫 나들이 하는 무대다. 3월 12일 오후 3시 청주예술의전당 소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공연에서 중창단 노을은 70년대와 80년대 공전의 히트를 보였던 대중가요와 팝송 등 감미로운 통기타 발라드를 들려줬다. 추억 어린 멜로디와 노랫말을 통기타 선율에 실어 보여준 이번 공연은 각자의 노래들과 다양한 이벤트를 더해 결코 가볍지 않으면서도 향수 어린 무대를 꾸몄다. 이날 공연에는 아가페 노래선교단을 비롯해 총북대 중창동아리 푸른소리, 총북레크레이

션 지도자협의회 회원들이 출연해 합동 공연을 펼쳐 추억과 옛향기에 젖게 했다.

대구·경북소식 이경달 매일신문 기자

신춘음악회 잇따라 열려

희망찬 새봄을 노래하는 신춘음악회가 잇따라 열렸다. 대구달서구첨단문화회관은 3월 7일 오후 7시30분 달서구첨단문화회관 인토피아트홀에서 봄맞이 기획공연을 가졌다. 또 대구오페라하우스도 <봄의 축전>을 시리즈로 개최했다. 3월 10일 오후 7시30분에는 첫 번째 행사로 영화를 통해 많이 알려진 음악을 연주하는 <영화 속 음악> 공연을 펼쳤다. 18일 오후 7시30분에는 30여 명의 성악가들이 출연, 릴레이로 볼과 관련된 노래를 들려주는 <봄을 부르는 소리> 공연, 25일 오후 7시30분에는 사랑을 노래한 오페라 아리아를 선보이는 <오페라 러브송> 행사가 열렸다. 이에 앞서 11일 오후 7시30분에는 대구시립오페라단이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신춘음악회를 가졌다.

해방 60주년 독립운동기념탑 건립 추진

올해 해방 6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항일독립운동기념탑이 4월에 착공돼 연말쯤 완공될 예정이다. 사단법인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건립위원회와 대구시는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1999년 이후 추진해 온 기념탑 건립(사업비 50억 원)을 4월에 착공기로 했다. 대구시 동구 효목동 망우공원 내 광복회관 옆 2천700평 부지에 들어설 독립운동 테마공원에는 높이 45m의 기념탑과 기념광장, 휴식처 등이 조성된다.

동요 작곡가 권태호 선생 노래비 건립

"나리 나리 개나리 입에 따라 물고요..."로 시작하는 <봄 나들이> 동요 작곡가로 유명한 안동 출신 권태호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기념관과 노래비 건립 사업이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추진된다.

안동지역 문화예술인으로 최근 결성된 '향토음악가 권태호 선생 기념관 및 노래비' 건립추진위원회는 선생의 음악세계와 업적을 기리고 문화관광자원화를 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구시 청소년 문화존 조성

대구시는 청소년들의 문화 감성 개발을 위해 4월부터 12월 말까지 『2005 청소년문화존』 조성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3억 6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4개 문화존에 9개 프로그램을 주말이나 공휴일을 이용해 상설,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존(국채보상공원 일대)에는 영상미디어 교실, 청소년문화축제, 청소년문화교실, 두류존(두류공원내 야외음악당)에는 청소년 동아리마당, 범어존(수성구 수련관, 박물관, 범어공원 일대)에는 전통문화교실, 전통문화체험마당, 월드컵존(월드컵 경기장 일대)에는 자전거스프츠, 스포츠참여마당, 종합문화마당이 개설된다.

경남소식 강동욱 경남일보 기자

2005년 통영국제음악제 봄 시즌 개막

2005 통영국제음악제 봄 시즌이 3월 17일부터 22일까지 통영시민문화회관 일원에서 성대하게 펼쳐졌다. 이번 통영국제음악제는 올해가 특히 윤이상 선생 타계 10주기가 되는 해로 주제를 '기억(Memory)'으로 부제를 '음악과 신화'로 정했다. 올해 행사는 크게 봄과 가을, 두 시즌으로 나



뉘어 열리며 봄 시즌은 3월 17~22일, 가을 시즌은 10월 27일~11월 6일 통영 시민문화회관과 페스티벌하우스, 문화마당 등 통영 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에 열린 봄 시즌 행사에는 해외 12개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정상급 아티스트들과 국내에서 촉망받는 아티스트 등 200여 명이 대거 참여했다.

17일 열린 개막 연주회는 현대음악을 대표하는 지휘자로 활약하고 있는 루디거 본의 지휘 아래 바이올리니스트 강동석, 코리안심포니, 서울모테트합창단, 소프라노 피아 콤포지가 출연하고 작곡가 진은숙의 「Kala」와 윤이상의 「Epilog」, 멘델스존의 바이올린 협주곡 Op.64, 몬테베르디의 마드리갈이 연주를 했다.

이번 봄 시즌 공식공연 프로그램에서는 새로운 시도들이 적용된 현대곡들이 초연되었다. 특히 음악의 노벨상으로 일컬어지는 그라베마이어서상을 수상한 진은숙의 공연과 함께 한국 및 아시아 작곡가들과 북유럽 작곡가들의 다양한 음악을 소개함으로써 현대음악제의 입지를 조망하고 평가받는 자리가 되었다.

또한 이번 행사에는 공식행사 외에도 부대행사 등 다채로운 공연들로 풍성한 자리가 되었다. 전야제 및 벨기에와 영국의 날 등 국가의 날 행사를 통해 통영을 찾은 관객들에게 예상치 못했던 즐거움과 설렘을 선사했다.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아마추어와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프린지 공연은 록, 재즈, 소규모 클래식 공연 등 자유로운 형식과 장르를 선보였다.

한편, 시즌행사로 5월 28일 통영에서 바흐콜레기움재팬의 공연, 6월 12일 대전에서 스티브 라이히와 TIMF 앙상블의 연주, 7월에는 국제윤이상아카데미와 앙상을 모데른이 통영시민문화회관에서 마련된다. 10월 27일부터 11월 6일까지 열린 가을 시즌행사는 음악회뿐만 아니라 국제 윤이상 심포지엄과 2005 경남국제음악콩쿠르(피아노 부문)가 열릴 예정이다.

경남도 문예기금 413개 단체 8억 지원

경남도는 올해 문예진흥기금 사업으로 413개 단체에 8억원을 지원하며, 진주 '큰들문

화센터' 등 12개 예술단체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했다.

경남도는 지난 2월 23일 각 장르별 4명의 전문가, 현장 예술인, 대학교수 등 총 36명의 전문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위원회에서 각 장르별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고 자생력이 있는 단체, 예술성이 높은 창작활동 및 도민에게 파급효과가 큰 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침을 선정하여 심사를 완료했으며, 지난 2월 28일 최종적으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지원금액이 확정되었다.

장르별로는 문학이 50건에 8,900만원, 미술 74건 9,900만원, 서예 33건 4,700만원, 사진 34건 6,400만원, 음악 51건 9,000만원, 연극 18건 1억원, 무용 19건 6,900만원, 전통예술 80건 1억1,200만원, 문예일반 24건 8,100만원, 창작활동 30건 4,900만원 등이다.

올해의 분야별 지원액 배분방법은 ▲최근 3년간 평균 지원된 금액 ▲금년도 신청건수, 금액, 단체 수 ▲전년도 사업실행률 등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으로 심의 확정했다.

올해 문예진흥기금은 지난 2004년 12월 28일까지 각종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문학, 미술, 서예, 사진,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문예일반, 창작활동 등 10개 장르를 대상으로 548건에 22억 6,500만원의 문예진흥기금지원 신청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 515건보다 33건 증가하고, 지원 신청액은 28억 7,900만원보다 6억 1,4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경남춤아카데미 창원 예술극단 극단 ▲객석과 무대▲극단 고도▲소극장 표현공간▲시단법인 경남오페라단▲숫대패 사물놀이 예술단▲고성 농요 보존회 ▲고성오광대 보존회▲큰들문화센터▲대산미술관▲구북예술촌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직업적이고 전문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법인 단체에 대하여 기부금품 공개모집 허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는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했다.

경남도 무대공연 지원 59개 작품 3억여원

경남도는 2005년 무대공연작품 지원사업으

로 경남 오페라단의 「오페라 논개」를 비롯해 총59개 작품에 3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경남도는 지난 17일 심사를 열고 연극, 무용, 음악, 국악 등 4개 분야 59개 작품 340백만원 지원을 확정했다. 부문별 지원 금액은 ▲연극= 14작품 9,900만원▲무용= 17작품 1억원▲음악= 18작품 7,200만원▲국악= 10작품 6,900만원이다.

제23회 경남연극제 열려

3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 동안 진해 시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제 23회 경남연극제가 열렸다.

올해로 23회째를 맞는 경연형식의 경남연극제는 통영, 함양을 제외한 도내 9개 시·군 대표 극단이 참가하는 가운데 개최됐다. 경남도와 경남연극협회(회장 정석수)가 주최하고 진해시·진해연극협회 주관으로 마련한 올해 경남연극제는 ▲12일=어머니(진해극단 고도)▲13일=양덕원이야기(밀양연극협회)▲14일=뽕뽕(거제 예도)▲15일=서툰 사람들(김해 신무)▲16일=꽃마차는 달려간다(마산 객석과무대)▲17일=태(사천 장자번덕)▲18일=이성계의 부동산(거창 입체)▲19일=유리의 성(창원예술극단)▲20일=지리산(진주극단 현장)이 공연됐다.

올해 경남 연극제 단체상에는 최우수상 1개 팀에 상장과 상금 200만원, 우수상 2개 팀에는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장려상 2개 팀에는 상장 및 상금 50만원이 각각 수여되고, 개인상으로 희곡상 1명, 연출상 1명, 연기상에는 남녀 각 1명, 무대예술상 1명에게는 상장 및 상금 20만원이 주어졌다.

경남예술사랑티켓 참가작품 확정

경남예술사랑티켓(경남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참가작품이 확정됐다. 경남예술사랑협 의체에서는 지난 3월 17일 경남예총에서 회의를 열고 국악, 무용, 연극, 오페라, 음악 등 5개 장르에 '경남예술극단' 등 20개 단체를 선정했다.

올해 경남예술사랑티켓 발매량은 일반 10,000매, 학생 17,300매로 증가하였다. 작년 발매량은 일반 6,000매, 학생 10,000

매였다. 예산도 작년 9,000만원(도비 3,000만원, 중앙문예기금 6,000만원)에서 올해 1억 5천만 원으로(도비 3,000만원, 중앙문예기금 1억 2,000만원) 증액되었다.

부산소식

박성권
국제신문 기자

부산연극제 개최

제23회 부산연극제가 오는 4월 1일에서 17일까지 열린다.

부산연극협회는 올해 부산연극제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소극장 야외무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야외무대, SH공간소극장, 액터스 소극장 등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산연극제는 경연 부문 5개 극단, 축하공연 부문 12개 단체가 각각 참가한다. 개막식은 1일 오후 4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며 2일 '부산연극제의 반성과 전망' (오후 4시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세미나가 열린다. 연극제 기간 동안 각각 세 차례씩 공연하는 경연 참가작품의 경우 첫 번째 공연을 마친 뒤 연출·연기자와 관객의 토론회가 약 30분 동안 진행되며 부대 행사로 <역대 부산연극제 대상 수상작품> 전시회가 1일에서 1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로비에서 마련된다.

경연 부문 참가작품은 극단 에저뜨의 <욕망을 삼키다(작 마미성, 연출 최재민)>, 극단 맥의 <열녀춘향수절가(작·연출 이정남)>, 극단 도깨비의 <하얀 마을 이시미(작·연출 김익현)>, 극단연구집단 시나위의 <BC 2430(작 강태욱, 연출 오정국)>,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PLAY(작·연출 김지웅)> 이다.

부산연극협회는 올해 경연 부문 참가작품의 경우 예년과 달리 참가 자격을 창작 초연작품으로 제한했다. 참가 극단이 이미 공연했던 작품을 축박한 기일에 다시 손질해 연극제에 참가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부산연극제 수상작이 명실공히 그해 부산 연극계를 대표하는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협회의 의지가 반영된 조치다.

또 연극협회는 올해 연극제 주제를 '연극사랑 관객사랑'으로 잡고 <태자 햄릿>(부산시

립극단) 등 12개 축하공연을 마련한다.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래)

모차르트의 재치와 천재성이 돋보이는 오페라 <코지 판 투테(여자는 다 그래)>가 16일에서 23일까지 부산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10차례에 걸친 장기공연을 펼쳤다.

<피가로의 결혼> <돈 조반니> <마술피리> 등과 함께 모차르트의 4대 오페라 중 하나인 이번 작품은 연인간의 오해와 이해를 다룬 희가극으로 현대에 맞게 번안된 작품이다.

2시간30분의 원작 공연 시간을 1시간30분으로 줄이는 대신 빠른 이야기 전개와 현대 감각에 맞는 대사, 치밀한 앙상블 등으로 관객들에게 '그랜드 오페라'에서는 맞볼 수 없는 아기자기한 재미를 선사했다.

이번 공연은 관람료가 대형 공연의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책정됐고 극 전개도 빨라 일반 관객들의 수준을 맞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 문단 '부산만의 지역색' 강조

부산지역 문단의 젊은 시인들이 새로운 형태의 단체를 결성하고 '부산만의 지역색'을 강조하는 별도 시문학 사업을 펼친다.

권경업 박윤규 박정애 배재경 성수자 신정민 원무현 전홍준 진명주 서정원 시인 등은 지난 9일 부산 중구 중앙동 고성갈비에서 예비모임을 갖고 부산시인회의(가칭)를 오는 5월 정식 발족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시인은 이달 말까지 부산진구 부전동에 임시 사무국을 마련한 뒤 4월 10일까지 회원 가입을 마무리하고 5월 초 출범식을 가진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단체에는 중견 시인 50여 명이 참여할 예정이어서 부산 문단에 적지 않은 충격파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인회의는 서울로 대변되는 중앙문단의 지배구조 아래 이른바 '지방'이라는 변방의 중심인 부산의 시문학이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결성된 조직으로 더 이상 한국문학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서울의 문학권력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부산시인회의는 부산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독창적인 문학활동을 개발해 실

행하고 연차적으로 지역의 작고시인을 기리는 시비건립에 나서는 등 부산 시단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송혜수 미술상' 제정

부산서 처음으로 화가의 이름을 딴 미술상이 만들어진다.

부산미술협회는 지난 9일 6.25시절 이종섭 등과 활동을 했던 송혜수(94) 화백이 출연한 현금과 부동산(아파트)으로 조성한 기금 1억 8,000여만 원을 마련, '송혜수 미술상'을 제정 운영키로 했다.

이 미술상은 송 화백의 작가정신을 이어받아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는 미술인을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자긍심을 심어주고 지역미술계에 활기를 불어넣어 작가들의 창작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

부산미술협회가 주관하며 매년 1명의 수상자를 선정, 1,000만 원의 상금과 상장 상패를 수여한다.

송 화백은 지난 50년부터 부산에 정착, 지금까지 꾸준히 활동하면서 후학들을 양성해 왔다. 1940년 일본 도쿄제국미술학교 재학시절부터 아카데미학 방법에서 탈피, 자유로운 미의식을 추구했던 그는 끊임없이 새로운 모색과 자신의 예술세계를 다져온 한국 근대미술 1세대 작가이다.

광주소식

박진현
광주일보 기자

제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주제 확정

광주를 미래 디자인의 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1회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가 '삶을 비추는 디자인(Light into Life)'이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18일에서 11월 1일까지 15일간 광주 전시컨벤션센터(GEXCO), 충장로, 상무지구 등 광주시 일원에서 펼쳐진다.

재단법인 광주비엔날레는 3월9일 재단회의실에서 제73차 이사회를 열고 '2005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전시주제와 행사일정' 등을 확정, 발표했다.

재단에 따르면 이번 디자인 비엔날레는 50억 원(국비 20억, 시비 20억, 민간협찬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 문화수도 광주를 '미

래 디자인의 발신지'로 육성하기 위해 본전시와 특별전 등 총 18개의 행사로 치러진다.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의 정체성을 보여줄 본전시는 인간과 일상 중심의 디자인, 차세대 정보기술 중심의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으로 꾸며지는 <미래의 삶>과 동북아를 대표하는 아시아 디자이너들의 무대인 <아시아의 빛>전 등 2개로 치러진다. 특별전은 <한국인의 생활과 디자인> <미래도시 광주> <Design from Gwangju> <세계의 디자이너 명예전당> 등 4개 행사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국제 디자인 컨퍼런스' '국제워크숍 및 세미나'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이벤트'가 행사기간 동안 광주 시내 전역에서 개최, 명실상부한 디자인 중심도시로서의 광주의 위상을 높이게 된다.

시민들의 참여마당으로 치러질 '디자인 비엔날레 이벤트'는 국내의 디자이너 경연장인 '광주 디자인스 블록' '디자인 베희시장' '스트리트 패션쇼' '빛의 축제' 등 다채로운 볼거리를 꾸며질 예정이다.

제19회 광주연극제 개막

이 지역 연극인들의 최대 축제인 제19회 광주연극제가 3월 30일부터 4월2일까지 4일간 매일 오후 7시30분에 광주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광주연극협회(회장·차영호)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광주예총이 후원하는 이번 연극제에는 극단 푸른연극마을의 <부용산 망가>와 진달래 피네의 <양로원 탈출기>, Y의 <서안화차>, 열아리의 <꽃땀이 나더러 다리를 감아보자 하여> 등 모두 4개 극단이 참여해 열띤 경연을 벌일 예정이다.

이번 연극제에서 최우수 수상작으로 선정된 작품은 오는 6월 8일 대전에서 개최되는 제23회 전국연극제에 광주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전국연극제는 지난 198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한국연극협회가 매년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로 서울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선발된 극단들이 참가, 기량을 겨루게 된다.

출품작인 푸른연극마을의 <부용산 망가>(30일, 작·연출 오성환)는 벌교지방의 소리를

중심으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다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 조국으로 돌아온 박기동 선생의 병상을 주 무대로 암울했던 과거와 치열한 삶을 살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듬하여 '무덤산'이 되어버린 '부용산'에 서려 있는 일반민중들의 꿈과 사랑을 다시 아우르는 작품이다.

한편 지난해 제18회 광주연극제에서는 극단 진달래 피네의 <이어진 운명사>가 17회에 이어 2년 연속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연출상, 남자연기상, 남·여 신인연기상, 특별상을 받는 등 6관왕의 쾌거를 일궈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광주 메세나협회 창립 1주년 공연

광주 메세나협회의(회장 김국웅)가 창립 1주년을 맞아 3월17일 오후 7시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기념공연으로 <오페라의 향연>을 무대에 올렸다.

광주오페라단(단장 임해철)이 선보인 이번 무대에는 바리톤 김동규 씨를 초청, 레온카발라오의 오페라 <팔리아치> 중 '안녕하세요'와 로시니 <세빌리아의 이발사> 중 '소문은 바람을 타고' 등 아름다운 아리아를 선사했다.

이와 함께 푸치니의 <토스카> 중 '별은 빛나건만', <자니 스키키>의 '오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비제 <카르멘> 중 '하바네라' 등 귀에 익숙한 아리아가 공연돼 관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 1월 창립한 광주 메세나 협의회는 경제침체로 인한 재정부족으로 활발한 활동을 벌이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문화중심도시에 걸맞는 활동을 펴나가겠다는 각오다. 이에 따라 연중 사업으로 '찾아가는 메세나'를 비롯 연 20회 이상의 공연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 지역기업으로부터 2억 원 이상의 기금을 조성, 예술단체의 공연·전시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영재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호남사상의 조명 학술대회

호남사상의 뿌리와 역사를 조명해 보는 뜻깊은 학술대회가 개최됐다. 아산 미술문화재단과 한국사상 문화원 창립 준비위원회는 3월 9일 광주 가톨릭센터 7층

소회의실에서 <15~18세기 한국사상문화강좌>를 개설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사상사를 연구해 온 전문가와 학자들이 주축이 된 것으로 15~18세기 조선시대에 호남사회가 이룩한 역사적 성과와 문화적 업적을 정리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것. 오는 4월 28일(매주 수·목요일, 오후 5시)까지 계속되는 이번 강좌에는 역사학자 이이화(한국사 전공) 씨의 '호남사회의 역사와 사회문화'를 비롯 황의동(충남대)교수의 '고봉 기대승과 그 학파가 추구한 학문세계와 이상', 김충열(고려대 명예교수)의 '성리학적 세계관과 고봉 기대승의 사상적 기반', 양은용(원광대)교수의 '전라좌수영과 의승군', 최한선(담양대)교수의 '15세기 이후 문학의 전개양상', 임형택(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소) 소장의 '조선 후기의 실학사상과 유불상교', 조수현(원광대)교수의 '조선 후기 서예술의 고찰' 등의 강좌가 이어진다.

전북소식 도 회장 전복일보 기자

임실필봉굿 현장에서 만난 최고령 채규병 할아버지

"사는 게 별거여? 한바탕 웃고 놀다가면 되는 것이지." 위태로워 보였다. 그칠 줄 모르는 상식의 팽과리 소리가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혹시나'하던 구경꾼들이 나서 '힘드시지 않냐'며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어느 누구도 그를 말리지는 못했다.

정월 대보름 판굿이 벌어진 2월 19일 임실군 강진면 필봉마을. 300년 이상 전통 마을 굿이 지켜져온 필봉굿의 진수를 맛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던 굿판



에 '스타'가 탄생했다. 임실필봉농악보존회(회장 양진성)의 최고령인 채규병 할아버지. 굿이 나이를 밝히지 않는다면 굿판에서 보여

지는 날렵함이나 기력으로 그의 나이를 짐작하기 어렵다.

올해 여든 살. 매서운 칼바람에 '내복' 한벌로 무장한 채 할아버지는 틈틈이 소주 한잔으로 목을 축이며 추위를 녹였다. 그리고 다스림 판굿에 몸을 실었다.

"끝까지 할랑가 모르겠소. 몸이 예전같지 않네 그려..."

소고쟁이인 채 할아버지는 큰 원을 그리는 바깥 쪽에서 앞서거나 뒤서거나 뛰다니며 거친 숨을 몰아치다가도 상쇠의 팽과리 소리가 앞서면 망설임 틈 없이 또다시 힘을 내 판을 따라잡는다.

"풍물은 참 마술 같은 거여. 글썄, 힘이 부쳐 지치다가도 흥이 나면 신들린 사람 마냥 힘든지 모르니까 말여."

자녀들은 모두 객지로 나가 살고 8년 전 '늙은막에 외로움 모르게 해주었던' 할머니마저 세상을 떠났지만, 필봉굿에 남은 인생을 '올인' 한 할아버지의 얼굴은 웃음이 가득이다.

"늙었다고 앉아서 대접만 받을 수 있는가. 지식, 손자 같은 사람들하고 어울려 노는 것이 행복이라면 행복이지."

한 해를 정월 대보름 판굿으로 여는 채 할아버지는 자신이 치는 굿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건강이라면 늘 자신했지만 요즘들어 부쩍 '세월'을 실감하는 할아버지의 소망은 따로 없다.

"나도 한 해 소망을 빌었지. 내년에도 '동심동심' 어깨춤이 절로 나도록 말여."

군산시 갤러리 '예감' 개관한 김경숙 관장



"군산이 걸로 보기에는 간혀 있는 것 같지만, 안으로는 뜨거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군산 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군산 문화를 새롭게 일으키고 싶은 마음으로 공간을 열게 됐다

는 갤러리 '예감' (군산시 나운동 843-3)의 김경숙 관장(42). 그는

"5년 전부터 취미로 서양화를 배우면서 지역 문화예술계와 작가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알게됐다"고 말했다.

"규모가 있는 갤러리들은 어떠한 상식적인 수준을 지켜야 하겠지만, 우리 예감은 작기 때문에 기존 틀을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감을 작가와 관객의 소통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

그는 "다양한 기획을 통해 작가와의 만남을 주선하고 그림을 즐겁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기획전이나 대관전이 없는 시기에는 소장품을 상설 전시해 언제나 그림이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 절기마다 관련 전문가와 미술관이나 역사유적지를 찾는 문화스폰도 준비하고 있다. 수요자와 작가를 연결시켜 그림을 대여하는 미술시장도 형성하고 싶다.

김관장은 "8평밖에 되지않는 협소한 공간을 작가들이 찾아주면 오히려 고마울 것 같다"며 공간을 무료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력은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젊은 작가들에게 그들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고 싶어요. 1년에 두 차례 정도 열게될 규모가 있는 기획전은 군산시민 문화회관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갤러리 예감 오픈 전 <봄-그 아름다운 예감展>은 3월 12일부터 18일까지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참여작가는 강웅면 고보연 고상준 박찬주 백승관 신익창 원창희 이경태 이동관 이승선 이승우 이철규 이희완 임택준 조영철 지용출 씨. 김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정 하나만으로도 꾸준히 작업해 온 지역의 중견작가들"이라고 소개했다.

부부전 <흙과 나무의 어울림>

나무와 흙은 서로를 필요로 한다. 늘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 흙과 나무지만, 서로의 귀함을 잃게 되면 언 땅에 묵음 다한 나무토막에 불과하다.

결혼 20주년을 맞은 목공 사내와 도공 계집, 이들 부부도 마찬가지다.

목공예가 송승호(50), 도예가 박순천(42)씨 부부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북예술회관에서 부부전을 열었다. <흙과 나무의 어울



림>이다.

"자기가 스무 살 '총각' 이었을 적에 나는 열두살 '어린 가시나' 였다고 말하던 남편이 벌써 오십입니다. 힘들게 살아왔지만, 이제 사랑해야 할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웃음 많은 아내의 손에 이끌려 좀처럼 밖으로 작품을 내놓지 않던 송씨가 부부전을 결심했다. 2년 동안 나무를 깎고 흙을 빚으며 식탁과 차탁, 컵, 화병, 접시 등을 만들었다. 흙을 구워 만든 의자 위에는 나무로 받침을 얹고 나무 차탁 위에는 도자기를 올려 놓았다.

"목공과 도공이 만났으니 찰떡궁합이라고들 하지만, 칭찬보다는 서로를 혼내기 바쁘죠. 아내는 깔끔하고 세련된 것을 좋아하고, 저는 나무의 형태를 자연스럽게 살리는 것을 좋아해 작품이 자꾸 화려해 저요."

그래도 부부는 "예술은 난해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친숙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그래서 전시장도 작품 사이를 건다 테이블에 잠시 앉아 쉬어도 되는, 편안함이 있는 곳으로 꾸몄다.

"외삼촌인 김을생 선생님(전북인간문화제)에게서 목공예를 배운 남편은 젊은 날 스님이었어요. 저를 만나 승복을 벗은 남편을 위해 기회가 된다면 남편의 첫 개인전을 열어 주고 싶어요."

한 길에 서서 세월이 지날수록 서로를 더욱 존경하게 된다는 이들. 소꿉놀이 같은 부부의 삶이 진솔한 작품으로 옮겨졌다.

제주소식 강태유 제민일보 기자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십 제주대회 조인식 『2006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십 제주대회』

공식유치 조
인식이 지난
2월 26일 오
전 11시 제주
시 열린정보
센터에서 열
려 제주대회 개최를 위한 공식적인 발걸음을
내디뎠다.



제주시와 세계마칭쇼밴드연맹은 이날 김영
훈 제주시장과 로버트 에클렌드 세계마칭쇼
밴드연맹 회장, 칸키치 하라다 일본연맹회
장, 김영방 세계마칭쇼밴드 한국연맹 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조인식을 열고 김 시장
과 에클렌드 회장이 각각 서명한 조인서를
교환했다.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십은 세계 각국의 청
소년들이 문화교류와 우의를 다지는 행사로
개최지의 문화를 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십 제주대회는 오는
2006년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25
개국 5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세계평화!
젊음의 음악으로'를 주제로 한라체육관과 야
구장 등 제주시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로버트 에클렌드 회장은 조인식 후 가진 기자
회견에서 "세계마칭쇼밴드 챔피언십은 개최
도시의 특수성에 맞게 진행되며 그 지역의 사
회·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행사"라며
"제주시와 전세계가 상호이해를 증진하기를
기대한다"며 제주대회의 기대감을 표시했다.

무보집 '해너춤·물허벅춤' 나와

제주의 해너춤과 물허벅춤을 체계화·정형
화시킨 무보집이 발간됐다.

제주도문화진흥원(원장·현운성)이 제주춤
의 세계화와 탐라문화 자원화를 위해 지금까지
지 체계화·정형화하지 못했던 제주의 상징
인 해너춤과 물허벅춤을 정리한 것으로 「해
너춤·물허벅춤」은 전국 국·공립무용단체
중 최초로 발간된 창작춤 무보집이다.

해너춤은 해너들의 삶을 춤사위로 표현한 것
이다. 이 춤은 해너들이 어둠을 뚫고 새벽 물
질(잠수업)을 나서는 것을 시작으로 망망대
해에 태왓(물질할 때 쓰는 도구) 하나에 의
지해 벌이는 작업, 그 전쟁 같은 긴 시간과

생명을 담보로 한 물말작업도 가족이 기다리
는 집으로 돌아간다는 기대로 노동의 피곤함
마저 이겨내는 삶의 모습에 묻어나는 강한
의지와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물허벅춤은 물을 길기 위해 허벅을 저 나를
때 허벅을 치며 흥을 돋기도 했다. 이 춤은
지난날 허벅춤의 재현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무대작품으로 재창작한 것이다.

제주도립예술단 안무자인 양성옥 한국예술
종합학교 전통예술원 무용과 교수가 집필
했다.

제주의 봄을 알리는 연주회

제주시립예술단과 서귀포시립관악단이 잇따
라 봄을 부르는 연주회를 열었다.

제주시립예술단은 지난 2월 22일 오후 7시
30분 한라아트홀 대극장에서 봄을 부르는
2005 신춘음악회를 열고 봄빛 가득한 곡들
을 선사했다.

김인재 씨의 지휘로 먼저 무대에 오른 시립
합창단은 주제페 조르다니의 〈오 내사랑〉,
조반니 바티스타 페르골레지의 〈만일 그대
가 나를 사랑하기에〉 등 이탈리아 가곡 모음
곡과 삐에르 세르명의 〈랄 랄 랄 말하지 않
을 수도 있지만〉, 삐에르 빠세로의 〈내 남편
은 멋지고 착해요〉 등 프랑스 무반주 르네상
스 세속합창음악을 들려줬다.

제주시립교향악단은 주페의 〈경기병 서곡〉
과 요한스트라우스 2세의 왈츠 〈봄의 소리〉
작품 410)과 쇼스타코비치의 〈재즈 모음곡
제2번 왈츠〉 등 화사한 봄을 잘 느끼게 해주
는 왈츠, 발레 모음곡으로 겨우내 움추린 마
음에 경쾌하고 리듬감이 넘치는 봄의 소리를
가득 채워줬다.

또 2월 24일 정기연주회 〈새봄을 여는 금빛
나팔소리...〉를 연 서귀포시립관악단도 고전
음악에서 합창음악, 타악공연, 가요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음악을 서귀포에서 불어오는
봄바람에 실어 보냈다.

서귀포시립관악단은 주페의 〈경기병 서곡〉,
그리그의 〈페르컨트 제1모음곡 작품 46〉과
스파크의 〈호른 4중주와 관악합주를 위한
아침의 노래〉, 세피의 〈페가수스의 비행〉 등
을 연주했고 초대손님으로 무대에 오른
KBS 제주방송총국 어린이합창단은 베직의

〈아직도 내겐 음악이 있네〉 등을 선사했다.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 지원대상 확정

제주도는 지난 3월4일 2005년도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사업' 및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정했다.

도는 이번에 두 개의 사업을 통합심사를 벌여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11건, '찾아
가는 문화활동사업'은 26건을 선정했다.

1억 1,200만원이 책정된 2005년도 '무대
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은 무용·국악·연
극·음악 등 4개 분야에 37건, 10억 2,360
여만원의 사업이 신청됐으며, 3억 2,000만
원이 배정된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은 음
악·국악·무용·연극·전시 및 종합(올해
첫 도입) 등 5개 분야에 43건, 8억 4,270여
만원의 사업이 신청됐다.

사진작가 서재철,

'화산섬의 바람자리 오름,퍼내



사진작가 서재철(59,
자연사랑 대표)씨가
지난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주의 대표
적인 오름들을 계절
별로 육상과 항공에
서 촬영한, 흔치 않
은 사진집 「화산섬의

바람자리 오름」을 발간했다.

죽은시습이오름에서 바라본 오름의 여명, 한
라산 서북쪽에서 바라본 동북사면의 오름들,
안돌·밭돌·체오름의 겨울철 모습, 흰눈으
로 치장한 동거미오름, 꽃향유가 만발한 용
눈이오름과 마주한 다랑쉬, 아흔아홉골과 여
승생...

이 책에서는 바람의 고향이면서 산체(山體)
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그저 비슷해 보이
지만 어느 것 하나 모양새가 같은 것이 없는
오름들과 이곳에서 만나는 꽃과 곤충, 노루
등의 사진 180여 컷이 화산섬의 바람자리
오름, 오름의 모습, 오름 이야기, 오름 알람
등과 한데 수록돼 있다.

『文化藝術』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다 앞서가는 잡지, 질 높은 잡지, 알찬 잡지를 만들기 위해
『文化藝術』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자 합니다.
부드러운 시선보다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지적해 주시면 겸허하게
'좋은 잡지' 라는 결실로 보답하겠습니다.

『文化藝術』에 의견을 주실 분을 위해서

- 원고마감은 매월 15일입니다.
- 원고는 우편이나 FAX, E-Mail 또는 본원 홈페이지(게시판)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원고접수시 성명, 주소, 전화번호 또는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 소 : 우 110-766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3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출판미디어사업팀
- 전 화 : 02-760-4568
- FAX : 02-760-4780
- E-Mail : magazine@kcaf.or.kr
- 홈페이지(게시판) : www.kcaf.or.kr

원고가 『문화예술』지에 게재되는 분께는 『문화예술』지 6개월분 무료구독 기회를 드립니다.